



화성지역
양육자 집단의
학교성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책임연구자 : 안 재 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공동연구자 : 이 명 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대표

곽 지 숙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발간의 글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입니다. 성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신을 성적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시기에 양육자의 성인식, 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주체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에 2020년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화성지역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 의식의 정도와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를 통해 지역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양육자의 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집단과 직장생활을 하는 양육자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집단의 온정적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 강화
- 교육기관과 양육자 집단 간 협력 활성화
-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 공공재인 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 성교육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잘 녹아져서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연구기간에도 책임연구자로 열정을 다해주신 안재희교수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신 이명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사무국장님, 설문 구성에 자문해주신 본 센터 자문위원 장인록위원님, 윤명화위원님, 김미경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설문을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경기도교육청 장인록위원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일동

목 차

I. 연구의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2
1. 화성시의 성교육 현황	2
2. 성교육 지형에서 양육자의 자리매김	3
III. 연구방법	5
1. 변수 설명	5
가.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5
나. 공공재로서 성교육	6
다. 성교육 내용	7
2. 조사 방법	7
가. 전문가 자문회의	7
나. 설문조사	8
3. 연구 대상	9
IV. 연구결과	10
1.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10
2.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18
3.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21
가. 학교 성교육 실시 여부 인식	21
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	26
다. 공공재로서 성교육	30
4. 학교 성교육에 대한 요구	32
가. 성교육의 주체	32
나. 학교 성교육 횟수	32
다.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33
라. 양육자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34
마.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 보완점	36
V.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42
부록_설문지	43



표목차

- <표 1> 2018-2019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실적.....2
- <표 2> 2018-2019 경기도이동형·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실적 ... 2
- <표 3> 성평등의식 지표 구성..... 5
- <표 4> 학교 성교육의 내용..... 7
- <표 5> 설문지 영역 8
- <표 6> 응답자의 개인 변수..... 9
- <표 7>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0
- <표 8> 자녀의 학교급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0
- <표 9> 직장생활 유무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0
- <표 10> 연령대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1
- <표 11> 학력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1
- <표 12> 자녀유형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12
- <표 13> 직장생활 유무별 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 12
- <표 14> 양육자 유형별 성교육 이수 기관 13
- <표 15> 양육자 연령대별 성교육 이수 기관 유형 13
- <표 16> 양육자 직장생활 유무별 성교육 이수 기관 13
- <표 17> 자녀 유형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기관 14
- <표 18> 교육기관 유형별 양육자가 이수한 성교육의 내용 14
- <표 19> 실시기관 유형별 양육자가 받은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15
- <표 20> 실시기관 유형별 자녀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17
- <표 21> 실시기관 유형별 자녀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18
- <표 22> 양육자의 성평등 의식 19
- <표 23> 성교육이수 경험 유무별 성평등의식 정도 20
- <표 24> 양육자 유형별 성평등 의식 정도 20
- <표 25> 직장생활 유무별 성평등의식 정도 20
- <표 26> 양육자 학력별 성평등 의식 정도 21

<표 27> 자녀의 학교급별 자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21
<표 28>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자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21
<표 29> 양육자 유형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22
<표 30>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22
<표 31> 직장생활 유무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23
<표 32>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23
<표 33>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23
<표 34> 직장생활 유무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24
<표 35> 성교육 내용을 알게 된 경로	24
<표 36> 성교육 실시 안내문 수령 여부에 대한 인식	24
<표 37>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 이수 경험	25
<표 38>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 이수 경험	25
<표 39> 학교 성교육 만족도 대한 인식	26
<표 40>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30
<표 41>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30
<표 42> 양육자의 성교육 경험 유무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30
<표 43> 양육자의 유형별 공공성에 대한 인식	31
<표 44>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별 공공성에 대한 인식	31
<표 45>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유무별 무임승차에 대한 인식의 차	32
<표 46>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른 성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32
<표 47> 자녀 유형별 학교 성교육 횟수	32
<표 48> 양육자 유형별 학교 성교육 횟수	33
<표 49>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33
<표 50>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양육자 집단의 인식	34
<표 51>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수준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35
<표 5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의견 반영	35
<표 53>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보완점	36

화성 지역 양육자 집단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의 목적

N번방 사건 등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성적 경험과 임신/출산 관련 경험을 선택, 결정하고 향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방법, 태도,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다(강남식·강선미, 2013).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제공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이다(안재희, 201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각급 학교에서 10시간이었던 성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15시간(혹은 차시)으로 증가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 주체들 간에 성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양육자 집단 간의 협력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이 가정과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진현수·박호란, 2011). 하지만 그동안 양육자 집단을 성교육의 수혜대상만으로 간주한 채 성교육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양육자 집단이 성교육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과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자 집단의 성교육 경험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양육자 집단이 원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주체적인 성교육자로서 양육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성교육 현장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과 성평등 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 의식 수준에 따라 학교 성교육 인식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 의식 수준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요구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화성시의 성교육 현황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이동형성문화센터 등을 비롯한 성교육 전문기관이 있다. 이 센터들은 청소년 집단뿐만 아니라 양육자 집단 등 성인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을 실시한다. <표 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8-2019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실적

단위: 명

	연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기타 청소년	성인	계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2018년	4,663	25,573	12,938	11,883	765	7,921	57,840
	2019년	2,549	21,270	17,727	6,530	518	3,384	51,978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2018년	8,444	10,943	10,878	3,776	3,234	12,125	39,293
	2019년	6,784	46,595	12,158	3,232	2,726	9,381	73,514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2018년	16,343	5,359	8,673	4,594	2,435	7,379	44,783
	2019년	13,669	14,117	4,439	1,095	2,552	8,793	44,665

자료출처: 2019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자료집

<표 2> 2018-2019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실적

단위: 명

	연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기타 청소년	성인	계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2018년	771	10,723	2,867	1,799	770	6,397	23,327
	2019년	602	8,164	3,990	1,960	593	5,012	20,321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2018년	118	14,325	4,238	1,217	1,247	135	21,280
	2019년	64	13,998	3,678	1,268	2,051	44	21,103

자료출처: 2019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자료집

2. 성교육 지형에서 양육자의 자리매김¹⁾

성을 중심으로 양육자 집단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자체에 대한 관심, 부모의 성인식 및 성평등의식이 자녀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학부모 및 양육자의 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2019년에 진행한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학부모의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거나 가정의 성평등의식 영향을 분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조사한 안상수 외(2012) 연구를 보면, 학부모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어머니보다 전반적으로 낮았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성평등의식은 교육수준에 비례하여 높아졌다. 그러나 외동딸이나 자녀가 모두 여자인 아버지들의 성평등의식은 남아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아들, 딸이 모두 있는 학부모들의 성평등의식은 아들만 가진 부모의 성평등의식과 유사하였다. 외동의 경우도 남아를 둔 부모에 비해 여아를 둔 부모의 성평등 양육태도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유형, 자녀유형, 학력 등 부모집단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양육자의 성평등의식이 자녀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초점을 둔 연구들(임정순·박옥임, 2002; 홍달아기 외, 2003; 안상수 외, 2012)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최초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가정 내 부모와의 접촉이고 이 관계는 향후 이루어질 모든 대인 관계의 모체가 되므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역할 사회화는 태어나면서 곧바로 부모에 의해 시작되고, 자라면서 학교와 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모의 전통적인 성고정관념 및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뿌리내리고 있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성고정관념 및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임정순·박옥임, 2002). 가정의 양육환경 환경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론을 이끌어 낸 안상수 외(2012) 연구를 보면 평등한 양육환경의 학생들은 불평등한 양육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 의식이 현저히 낮았다. 유문숙과 그의 동료들(2003)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부모로부터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더 높았는데, 이에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성태도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초, 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에 대한 최윤정 외(2019)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겪는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부모에 의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불평등한 가사분담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도 어른들이 기대하는 남자다움의 압박감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학교에서 배운 성평등 가치와 가정의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상이에서 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연숙과 정인숙(2010)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학생은 대조군의 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더 바람직하게 향상되었으며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태도가 더 양성평등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평등교육의 효과는 단순히 교육프로

1) 본 절의 내용은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한 '2020성평등교육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그램의 여부, 내용과 질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사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최윤정 외, 2019: 79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함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향후 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를 희망하면서도 성교육 및 성 관련 대화를 하기 어려워하는 실정이라는 현실에서 부모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임미림·변영순, 2002; 김윤숙, 2008; 박선례, 2009; 박경순·김민화, 2016; 조명주·임견주, 2020).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가정을 자녀 성교육의 첫 번째 장소로 규정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가 자녀에게 기초적인 모델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 성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우선 부모들이 자녀 성교육 실시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분석한 임미림과 변영순(2002)의 연구를 보면, 95% 이상의 부모가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지만 부모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11.6%)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박경순과 김민화(2016)는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지식의 부족 이외에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총 6회기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들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성교육이 불필요하다거나 성기나 순결교육 위주의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명주와 임견주(2020)는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것이 부모효능감, 성지식, 성역할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박선례(2009)는 부모교육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성태도의 변화를 통해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육자 집단을 성교육의 단순한 수동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 성교육의 실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말해 양육자 집단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교육의 동반자로서 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공재로서 성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만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존 사회의 성규범에 도전하고 성적으로 가장 열악한 집단을 위해 교육 자원과 교육기회를 재분배하려는 변화에 양육자 집단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교육 관련 단체들의 연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 지형을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학교 성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변수설명²⁾

가.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성평등이란 성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고 국가,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모든 사회영역에 참여할 때 수적으로 동등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최윤정 외, 2018: 14). 성평등의식은 일상에서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식하고 특정 성에게 불평등이 발생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성평등교육은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발현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교육부, 1999). 다시말해 성평등교육은 성평등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부모의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역할의식, 양가적 성차별의식, 성인지 감수성을 세부 지표로 활용하고 총 26문항을 구성하였다. 성평등의식 전체 26문항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88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평등의식 지표 구성

구분	영역	문항 번호
성역할 의식	가정영역(3문항)	1 ⁺ , 2 ⁺ , 3
	학교영역(3문항)	4, 5 ⁺ , 6 ⁺
	직장영역(3문항)	7 ⁺ , 8 ⁺ , 9 ⁺
	사회영역(3문항)	10 ⁺ , 11 ⁺ , 12 ⁺
양가적 성차별	적대적 성차별주의(3문항)	13 ⁺ , 14 ⁺ , 18 ⁺
	온정적 성차별주의(3문항)	15 ⁺ , 16 ⁺ , 17 ⁺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8문항)	19 ⁺ , 20 ⁺ , 21, 22 ⁺ , 23 ⁺ , 24 ⁺ , 25 ⁺ , 26 ⁺

⁺ 역코딩 문항

성역할(sex role, gender role)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을 말한다. 즉 남성의 행동과 여성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대로써 각 성에게 부여된 가족 역할, 사회적 역할은 물론 자아개념, 심리적 특성들을 포함한다(김명화, 2005). 이러한 성역할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및 가치를 사회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역

2) 본 조사의 설문문항은 「서울시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조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변수에 대한 내용은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한 '2020성평등교육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들의 신뢰도 수치는 화성시 양육자 집단의 성교육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할 사회화란 양성에 대한 태도와 기대, 행동, 가치 기준,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들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적절한 선호, 인성 특성, 행동, 자아개념 그리고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집단의 성역할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양희, 이수연, 김혜영(2002)이 제작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축약형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역할의식 검사척도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850이다.

양가적 성차별의식 지표는 Glick &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우리 문화에 맞게 개발한 안상수 외(2005) 지표를 활용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으로 구분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인식해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한다고 인식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해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안상수 외,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처벌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우대하는 듯 보이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전통적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 남성지배권력 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을 학교 성교육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3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문항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768이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e)은 '일상에서 형성된 젠더 이슈, 즉 남녀의 성차별적이고 성 역할 고정 관념적인 불평등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이해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의미한다(하경해, 2018). 다시말해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차별과 권력관계를 성찰하고 자기에게 낯설고 불편한 것도 과감히 수용하는 시민의식과 태도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13).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젠더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자기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당연시 여겨왔던 젠더 문제를 다르게 인식한다.

양육자 집단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3년에 개발한 젠더 감수성 지표 15 문항 중 가정, 성의식, 성폭력, 성매매 등에 해당되는 8문항을 채택해 활용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문항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658이다.

나. 공공재로서 성교육

성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교육의 효과를 특정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배제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와 의 경쟁을 통해 성교육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성교육의 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효과로부터 튕겨 나가지 않는다. 본 조사에서는 양육자 집단이 공공재로서 성교육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공공재로서 성교육을 측정하는 전체 4문항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821이다. 한편, 공공재가 갖고 있는 역효과로 무임승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문항을 추가했다.

다. 성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개념에 기반해 성교육을 정의 내렸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교과 과정에 기반한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성교육의 목표도 학습자가 자신의 건강, 복지 및 존엄성의 실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성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의 선택이 자신의 안녕과 다른 사람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교육의 내용은 성 및 생식 해부학 및 생리학, 사춘기와 월경, 피임, 임신, 출산, AIDS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학습자가 알아야 할 인권, 건강하고 존중하는 가족생활 및 대인 관계, 개인적 및 공유적 가치, 문화적, 사회적 규범, 남녀평등, 차별 금지, 성행위, 폭력 및 성폭력, 아동 및 성적 학대, 조기 및 강제 결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학교 성교육의 내용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② 성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	⑥ 인간의 신체의 발달 (신체이미지, 사춘기 신체변화 등)
③ 젠더의 이해 (성고정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
④ 성건강복지를 위한 기술 (뜨래문화, 성규범, 미디어정보 해독력과 의사소통 기술)	⑧ 성 및 재생산건강 (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포괄적 성교육 내용은 어릴 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을 참고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8개의 성교육 내용 영역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성교육 내용이 어느 연령대에 교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는 전체 8문항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929이다.

2. 조사 방법

가.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성교육 전문가 4명에게 설문 내용의 구성과 내용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웹설문 조사방식(구글폼)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8일-12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설문지 영역

영역	문항내용
개인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 유형 • 연령, 직장생활 유무, 학력, 자녀관계, 자녀의 학교급
성교육 이수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 본인의 성교육 이수경험 • 양육자 본인이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 성교육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
성평등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의식 • 양가적 성차별주의 • 성인지 감수성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인식 • 성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학교 성교육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실시 정도 • 성교육 목적 • 성교육 내용 • 양육자집단과의 협력 여부 • 학교 성교육 개선 지점

설문 영역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변수 영역으로 연령, 학력, 자녀 유형, 자녀의 학교급 그리고 직장생활 유무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양육자 본인의 성교육 이수경험이다. 성교육 이수 경험의 유무 이외에 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양육자의 성평등의식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성역할의식 척도,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 성인지 감수성 척도)를 활용해 조사하였다. 각 개인의 성평등의식 총점수를 구한 후 집단의 평균값 84.5점을 기준으로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성평등의식 높은 집단에는 총 272명으로 56.5%를 차지했고,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은 209명으로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영역은 양육자들이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 실태로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와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은 학교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 집단의 요구로 성교육 실시 횟수 강화 여부, 교육목적 및 내용에 대한 기대, 양육자집단과의 협력 여부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42부를 회수했지만 응답 조사지 중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7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합된 설문지는 SPSS 25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507명의 개인적 사항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양육자 유형은 어머니가 87.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는 12.6%였다.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62.5%(317명)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이하가 28.4%(144명), 50대 이상이 9.1%(46명)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가장 높은 62.9%(319명)였으며 다음으로 초대졸이 15.2%(77명), 대학원 이상이 12.0%(61명)였다. 이와같이 응답자의 90.1%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고졸은 전체 응답자의 9.9%에 불과했다.

양육자 집단의 직장생활 유무를 보면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2.1%를 차지했고 안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7.9%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양육자의 유형별로 보면 어머니 집단 중 57.3%(254명), 아버지 집단의 95.3%(61명)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 집단 중 76.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 중 62.5%, 중학생 자녀를 둔 집단 중 50.5%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6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학교 18.7%, 고등학교 14.0%를 차지했다. 자녀 유형은 남매가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형제가 17.9%, 자매가 20.3%, 외동아들이 16.8%, 외동딸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개인 변수

	유형	빈도	비율
부모 유형	어머니	443	87.4
	아버지	64	12.6
연령	30대 이하	144	28.4
	40대	317	62.5
	50대 이상	46	9.1
학력	고졸	50	9.9
	초대졸	77	15.2
	대졸	319	62.9
	대학원 이상	61	12.0
직장생활 유무	한다	315	62.1
	안한다	192	37.9
학교급	초등학교	341	67.3
	중등학교	95	18.7
	고등학교	71	14.0
자녀형태	형제	91	17.9
	남매	176	34.7
	자매	103	20.3
	외동아들	85	16.8
	외동딸	52	10.3
전체		507	100.0





IV. 연구결과

1.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가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49.5%는 '이수 경험이 없다'고 했다. 양육자 유형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7〉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어머니	221(49.9)	222(50.1)	443(87.4)
아버지	35(54.7)	29(45.3)	64(12.6)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한편, 자녀의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가 고등학생인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7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교(66.3%), 초등학교(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1$).

〈표 8〉 자녀의 학교급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초등학교	143(41.9)	198(58.1)	341(67.3)
중학교	63(66.3)	32(33.7)	95(18.7)
고등학교	50(70.4)	21(29.6)	71(14.0)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X^2=30.786df=2p=.000**$$

*** $p < .001$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집단(58.9%)이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45.4%)보다 성교육 이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직장생활 유무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하고 있음	143(45.4)	172(54.6)	315(62.1)
하고 있지 않음	113(58.9)	79(41.1)	192(37.9)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X^2=8.642df=1p=.003*$$

* $p < .05$

양육자의 연령대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50대 이상의 양육자 집단(69.6%)이 다른 연령대(40대 47.9%, 30대 이하 50.0%)의 양육자 집단보다 성교육 이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양육자 집단 중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가 76.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서 살펴본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 집단의 성교육 이수 경험율(70.4%)이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표 10〉 연령대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30대 이하	72(50.0)	72(50.0)	144(28.4)
40대	152(47.9)	165(52.1)	317(62.5)
50대 이상	32(69.6)	14(30.4)	46(9.1)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X^2=7.528df=2p=.023*$$

* $p < .05$

양육자집단의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인 양육자 집단(73.8%)의 성교육 이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자(43%)인 경우 성교육 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1$).

〈표 11〉 학력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고졸	21(42.0)	29(58.0)	50(9.9)
초급대졸	37(48.1)	40(51.9)	77(15.2)
4년제대졸	153(48.0)	166(52.0)	319(62.9)
대학원 이상	45(73.8)	16(26.2)	61(12.0)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X^2=15.666df=3p=.001**$$

** $p < .01$

자녀유형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정도를 알아본 결과, 형제(68.1%)와 자매(50.5%)를 둔 양육자 집단의 이수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남매, 외동딸, 외동아들을 둔 양육자인 경우 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다른 양육자 집단보다 형제를 둔 양육자 집단의 이수 경험이 뚜렷하게 높았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5$).





〈표 12〉 자녀유형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형제	62(68.1)	29(31.9)	91(17.9)
남매	79(44.9)	97(55.1)	176(34.7)
자매	52(50.5)	51(49.5)	103(20.3)
외동아들	40(47.1)	45(52.9)	85(16.8)
외동딸	23(44.2)	29(55.8)	52(10.3)
전체	256(50.5)	251(49.5)	507(100.0)

$X^2=14.756df=4p=.005*$

* p<.05

성교육 ‘이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정보가 없었거나(35.7%),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39.4%)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자 대상 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잘 전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외에 눈여겨 볼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율이 12% 나타났고 ‘교육적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율도 5.6%라는 점이다.

양육자 집단의 직장생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p<.001). 직장생활을 하는 양육자의 52.3%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직장생활 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성교육 이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집단의 61%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정보가 없어서’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직장생활을 하는 양육자 집단 중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응답율이 14.0% 나왔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 중 10.4%는 ‘교육적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장생활 유무별 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직장생활을 하지 않음	전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정보가 없어서	42(24.4)	47(61.0)	89(35.7)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직장생활 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90(52.3)	8(10.4)	98(39.4)
필요성을 못 느껴서	24(14.0)	6(7.8)	30(12.0)
교육적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10(5.8)	8(10.4)	18(7.3)
기타	6(3.5)	8(10.4)	14(5.6)
전체	172(69.1)	77(30.9)	249(100.0)

$X^2=51.444df=4p=.000***$

* p<.001

성교육을 이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28.5)',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24.6%)', '직장(24.6%)'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교나 직장 이외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통해 성교육을 이수한 양육자들이 상당 비율(46.9%)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양육자들이 성교육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표 14〉 양육자 유형별 성교육 이수 기관

직장생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직장	기타	전체
어머니	63(28.5)	56(25.3)	46(20.8)	56(25.3)	221(100.0)
아버지	10(28.6)	7(20.0)	17(48.6)	1(2.9)	35(100.0)
전체	73(28.5)	63(24.6)	63(24.6)	57(22.3)	256(100.0)

$$X^2=16.669df=3p=.001**$$

** p<.01

양육자의 연령대에 따라 성교육 이수 기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30대 이하(35.2%), 50대 이상(37.5%) 양육자 집단은 '직장'에서 이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경험은 40대 이상인 양육자 집단(51.8%)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양육자 연령대별 성교육 이수 기관 유형

직장생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직장	기타	전체
30대 이하	14(19.7)	14(19.7)	25(35.2)	18(25.4)	71(100.0)
40대	51(33.3)	41(26.8)	26(17.0)	35(22.9)	153(100.0)
50대 이상	8(25.0)	8(25.0)	12(37.5)	4(12.5)	32(100.0)
전체	73(28.5)	63(24.6)	63(24.6)	57(22.3)	256(100.0)

$$X^2=15.010df=6p=.020*$$

* p<.05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34.3%)'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25.2%)에서 이수한 비율이 높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32.7%)'와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26.5%)'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6〉 양육자 직장생활 유무별 성교육 이수 기관

직장생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직장	기타	전체
하고 있음	36(25.2)	33(23.1)	49(34.3)	25(17.5)	143(100.0)
하지 않음	37(32.7)	30(26.5)	14(12.4)	32(28.3)	113(100.0)
전체	73(28.5)	63(24.6)	63(24.6)	57(22.3)	256(100.0)

$$X^2=17.181df=3p=.001**$$

** p<.01





양육자의 자녀 유형에 따라 성교육 이수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형제를 둔 양육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40.3%), 남매를 둔 경우는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32.9%), 자매(30.2%), 외동아들(23.1%), 외동딸(56.5%)을 둔 경우는 직장에서 이수한 비율이 높았다.

〈표 17〉 자녀 유형별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기관

자녀유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직장	기타	전체
형제	25(40.3)	12(19.4)	11(17.7)	14(22.6)	62(100.0)
남매	22(27.8)	26(32.9)	14(17.7)	17(21.5)	79(100.0)
자매	12(22.6)	12(22.6)	16(30.2)	13(24.5)	53(100.0)
외동아들	12(22.6)	8(20.5)	9(23.1)	13(33.3)	39(100.0)
외동딸	5(21.7)	5(21.7)	13(56.5)	-	23(100.0)
전체	73(28.5)	63(24.6)	63(24.6)	57(22.3)	256(100.0)

$X^2=28.142df=12p=.005*$

* p<.05

양육자들이 이수한 성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춘기 및 음란물 지도 등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이해(48.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젠더기반 폭력 예방 교육(27.2%)’,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훈련(23.6%)’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교육기관 유형별 양육자가 이수한 성교육의 내용

	자녀 성교육이해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훈련	기타	전체
자녀의 학교	46(63.0)	15(20.5)	11(15.1)	1(1.4)	73(100.0)
성교육 전문기관	34(54.8)	13(21.0)	15(24.2)	0(.0)	62(100.0)
직장	9(14.3)	36(57.1)	17(27.0)	1(1.6)	63(100.0)
기타	27(48.2)	5(8.9)	17(30.4)	7(12.5)	56(100.0)
전체	116(45.7)	69(27.2)	60(23.6)	9(3.5)	254(100.0)

$X^2=69.542df=9p=.000***$

*** p<.001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육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p<.001). 학교는 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이해(63.0%)’와 ‘젠더 기반 폭력 예방 교육(20.5%)’을, 성교육 전문기관은 ‘자녀 성교육이해(54.8%)’와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훈련(24.2%)’을 그리고 직장에서는 ‘젠더기반 폭력 예방 교육(57.1%)’이 주를 이루었다.

성교육을 이수한 양육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수한 성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1.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실시기관 유형별 양육자가 받은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 못함	거의 만족 못함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자녀의 학교	2(2.7)	12(16.4)	40(54.8)	19(26.0)	73(100.0)
성교육 전문기관	0(0)	5(8.1)	39(62.9)	18(29.0)	62(100.0)
직장	2(3.2)	15(23.8)	37(58.7)	9(14.3)	63(100.0)
기타	4(7.0)	8(14.0)	32(56.1)	13(22.8)	57(100.0)
전체	8(3.1)	40(15.7)	148(58.0)	59(23.1)	255(100.0)

양육자 집단이 이수한 성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육효과에 있어서는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녀교육 및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등 교육효과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외에 강사에 대한 만족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

- 강사가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사례를 이야기 할 때
- 공교육의 성교육대비 구체적이었다.
- 구체적인 교육을 해줘서 좋았다.
- 내용이 만족
- 내용이 좋아서
- 사고 발생시 대처법
- 대부분 성교육은 생리적인 부분이거나 성폭력에 집중되어있는 것에 반해, 학부모회에서 주최한 성교육이 성평등과 자기결정권 등 가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에 집중되어있어서 좋았다.
- 사춘기 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수강할 수 있었다.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

- 가격이 비쌌지만 제대로 알려줬던 거 같아요
- 강의를 통해 자녀 성교육 방법을 알 수 있었다
- 남매를 양육함에 있어 궁금했던 점과 사춘기 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 만족함
-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 관습적인 행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 성폭력의 종류가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 남자아이에 대한 전문 성교육으로 만족함
- 남자아이다보니 엄마가 어디선까지 이해해야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받음
- 모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정리되는 느낌
-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해
- 막연하던 범위가 좁혀진 느낌입니다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도 알고 내가 알고 있던 방식이 잘못된 것도 깨달았다
-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음
- 사춘기의 성은 어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서워서(매체, 전화, 만남...)
요즘은 광범위해서 아이에 대한 관심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희망이 되었네요





- 아이가 어려서 어떻게 성에 대해 접근하고 이야기해 줘야할지 걱정되었는데 강의를 듣고 성에 대해 꾸밈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집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좋았어요
- 잘 못 알고 있는 성관련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음으로서 아이에게 바른 성교육지도를 할 수 있었음
- TV를 통해 전문 강사에 의한 본인의 경험담 및 사회 전반적인 성에 대한 시각과 자녀에 대한 성교육이 설득력이 있었다.
- 대처 방법이나 상황 등을 잘 설명해 주셨다.

강사에 대한 만족

- 강사가 강의를 잘했다
- 강사가 설명을 잘해주었다.
- 강사님께서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 강의해주심

한편, 양육자 집단이 이수한 성교육에 불만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교육내용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부모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교육과 달라진 바가 없는 틀에 박힌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이라는 언급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의 일회성 교육에 대해 기술하였다. 강사에 있어서도 강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낮다고 언급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

- 너무 이론적인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 같아요
- 너무 기초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 교육 내용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 부족
- 너무 틀에 박힌 옛날 성교육
-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엇부터 해줘야할지 감이 안 오더라구요
-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
- 부모 자녀사이의 성교육이 아님
-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됨
- 부실한 내용
- 시대와 학년별 차별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다
-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거 외에 성폭력예방과 성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와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좀 더 올렸으면...
-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라서
- 지극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새롭지 않았다
- 형식적이고 이론만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성교육과 달라진 바 없는 것이 없습니다
- 청소년기의 의미없는 출산교육이었다
- 나이별 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내용이 시대를 못 따라갑니다

교육방법

- 단회기가 아닌 자주 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 시간이 짧고 일회성에 그쳐서
- 요식행위 정도의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이었다
- 교육 한번으로는 정확히 알기에 부족합니다

강사에 대한 불만족

- 강사에 따라서 인권이나 혹은 실제 대처법 등등 주제가 달라져서 깊이나 내용의 차이 등

교육효과

-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서
- 실용성이 떨어짐
-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성교육 방법을 교육받길 원했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서
- 제가 알아듣긴 쉬운데 자녀에게 교육하려니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이수한 교육이 자녀 성교육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 집단(95.0%)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교육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 집단의 경우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23%)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20〉 실시기관 유형별 자녀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됨	거의 도움이 안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초등학교	6(4.2)	27(18.8)	88(61.1)	23(16.0)	144(100.0)
중학교	-	3(4.9)	39(63.9)	19(31.1)	61(100.0)
고등학교	2(4.2)	5(10.4)	29(60.4)	12(25.0)	48(100.0)
전체	8(3.2)	35(13.8)	156(61.7)	54(21.3)	253(100.0)

$$X^2=14.032df=6p=.029*$$

* p<.05

성교육 이수 기관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자녀 성교육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표 21〉 실시기관 유형별 자녀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됨	거의 도움이 안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2(2.9)	8(11.4)	40(57.1)	20(28.6)	70(100.0)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	2(3.2)	44(71.0)	16(25.8)	62(100.0)
직장	2(3.2)	14(22.6)	39(62.9)	7(11.3)	62(100.0)
기타	4(7.0)	10(17.5)	32(56.1)	11(19.3)	57(100.0)
전체	8(3.2)	35(13.8)	156(61.7)	54(21.3)	253(100.0)

$X^2=20.831df=9p=.013*$

* p<.05

2.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4점 척도 기준 평균 3.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역할 의식은 전체 평균 3.55로, 응답자들은 성고정관념 하에 성역할을 규정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과학, 기술 분야의 공부는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평균 3.30)’, ‘밥 짓기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평균 3.33)’, ‘여자가 욕을 하는 것은 남자가 욕하는 것보다 보기에 더 안 좋다(평균 3.37)’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은 전체 평균 3.18로, 적대적 성차별 평균 3.43, 온정적 성차별 평균 2.92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적대적 성차별의 세부 항목 중 ‘여자들은 자신이 여자임을 내세워 남자들을 이용하려고 한다(3.11)’를 성차별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의 세부 항목 중에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꼼꼼하고 세심하여 가사일과 자녀들을 더 잘 돌본다(평균 2.56)’,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평균 2.73)’는 문항을 성차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우대하는 듯 보이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전통적 성역할을 유지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전체 평균 2.87로 다른 두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평균 1.43)’,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평균 2.82)’,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2.97)’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이성애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매매 금지가 성폭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성통념이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표 22〉 양육자의 성평등 의식

양육자의 성평등 의식	화성시	평균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3.80	3.88
2. 집, 땅과 같은 큰 재산은 아내보다는 남편이 소유하는 것이 좋다.	3.61	3.76
3. 밥 짓기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3.33	3.51
4.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3.63	3.71
5. 반장(회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좋다.	3.70	3.79
6. 과학, 기술 분야의 공부는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	3.30	3.39
7. 여자는 중요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3.60	3.79
8.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3.43	3.67
9. 회사에서 남자가 여자의 부하로 일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3.65	3.82
10. 데이트 신청은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	3.47	3.78
11. 여자가 욕을 하는 것은 남자가 욕하는 것보다 보기에 더 안 좋다.	3.37	3.44
12.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3.63	3.73
13. 여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면 남자에게 맡길 때 보다 더 불안하다.	3.62	3.72
14. 여자들은 자신이 여자임을 내세워 남자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3.11	3.29
15. 여자들은 남자보다 꼼꼼하고 세심하여 가사일과 자녀들을 더 잘 돌본다.	2.56	2.94
16.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2.73	2.98
17.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	3.44	3.66
18. 남자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자들보다 더 많은 권한(권력)을 주어야 한다.	3.56	3.78
19. '민폐녀', '진상녀' 등 00녀의 등장은 한국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3.05	3.44
20.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이 적다.	3.24	3.47
21. 키스 등 스킨십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물으면 분위기만 깎 뿐이다.	3.28	3.58
22.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1.43	1.61
23.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2.97	3.39
24. 비(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은 불완전한 가족이다.	3.10	3.24
25.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2.82	2.98
26.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비난받는 것이다.	3.08	3.42
전체	3.25	3.45





성교육이수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성평등의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p < .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았다.

〈표 23〉 성교육이수 경험 유무별 성평등의식 정도

	성평등의식 수준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성교육 경험있음	성교육 경험없음	성교육 경험있음	성교육 경험없음		
성평등의식	87.2379	81.7866	9.32095	12.21621	5.508	.000***

*** $p < .001$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자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성역할의식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4〉 양육자 유형별 성평등 의식 정도

	성평등의식 수준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성평등의식	84.9690	81.5082	11.06852	11.59112	2.268	.024*

* $p < .05$

양육자 집단의 직장생활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장생활을 안하는 집단의 성평등의식이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5〉 직장생활 유무별 성평등의식 정도

	성평등의식 수준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직장생활 함	직장생활 안함	직장생활 함	직장생활 안함		
성평등의식	83.5541	86.0919	12.02020	9.51984	2.268	.024*

* $p < .05$

양육자 집단의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성평등의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년제 대졸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사후분석 한 결과, 대학원 이상 양육자 집단과 다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표 26〉 양육자 학력별 성평등 의식 정도

	학력								F값	p값
	평균				표준편차					
	고졸 a	초급대졸 b	대졸 c	대학원졸 d	고졸 a	초급대졸 b	대졸 c	대학원졸 d		
총 성평등 의식	83.4348	83.4133	83.9373	90.0351	9.43198	10.95827	11.65676	8.58147	5.430	.001** d>a,b,c

** p<.01

3.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가. 학교 성교육 실시 여부 인식

전체 응답자의 87.9%가 자녀들이 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양육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표 27〉 자녀의 학교급별 자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초등학교	287(84.7)	52(15.3)	339(100.0)
중학교	88(93.6)	6(6.4)	94(100.0)
고등학교	67(95.7)	3(4.3)	70(100.0)
전체	442(87.9)	61(12.1)	503(100.0)

$$X^2=10.232df=2p=.006**$$

** p<.01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28〉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자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242(95.3)	12(4.7)	254(100.0)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200(80.3)	49(19.7)	249(100.0)
전체	442(87.9)	61(12.1)	503(100.0)

$$X^2=26.386df=1p=.000**$$

** p<.001





자녀가 학교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작 시기를 질문한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이전에 성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8.6%는 유치원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22.0%), 초등학교 저학년(17.5%)이라고 했으며 중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양육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유치원에서부터 자녀가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1$). 어머니의 62.0%가 성교육 시작 시기를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아버지는 35.7%만이 그 시작 시기를 유치원으로 인식하였다.

〈표 29〉 양육자 유형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성교육 시작 시기	어머니	아버지	전체
유치원	238(62.0)	20(35.7)	258(58.6)
초등학교 저학년	54(14.1)	23(41.1)	77(17.5)
초등학교 고학년	87(22.7)	10(17.9)	97(22.0)
중학교	5(1.3)	3(5.4)	8(1.8)
전체	384(100.0)	56(100.0)	440(100.0)

$$X^2=31.053df=3 p=.000**$$

** $p < .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양육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치원에서부터 자녀가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양육자의 68.5%가 성교육 시작 시기를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성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집단은 46.7%만이 유치원으로 인식하였다.

〈표 30〉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성교육 시작 시기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전체
유치원	165(68.5)	93(46.7)	258(58.6)
초등학교 저학년	35(14.5)	42(21.1)	77(17.5)
초등학교 고학년	36(14.9)	61(30.7)	97(22.0)
중학교	5(2.1)	3(1.5)	8(1.8)
전체	241(100.0)	199(100.0)	440(100.0)

$$X^2=23.881df=3 p=.000**$$

** $p < .001$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양육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치원에서부터 자녀가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1$).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양육자의 73.2%가 성교육 시작 시기를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은 49.6%만이 그 시작 시기를 유치원으로 인식하였다.

〈표 31〉 직장생활 유무별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성교육 시작 시기	직장생활 함	직장생활 안함	전체
유치원	135(49.6)	123(73.2)	258(58.6)
초등학교 저학년	57(21.0)	20(11.9)	77(17.5)
초등학교 고학년	20(11.9)	24(14.3)	97(22.0)
중학교	7(2.6)	1(.6)	8(1.8)
전체	272(100.0)	168(100.0)	440(100.0)

$$X^2=24.370df=3 p=.000**$$

** p<.001

전체 응답자의 43.6%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56.4%는 성교육의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의 학교급별로 양육자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중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의 52.7%,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양육자의 50.7%가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39.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2〉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약간 안다	잘 안다	전체
초등학교	50(14.7)	156(45.7)	124(36.4)	11(3.2)	341(100.0)
중학교	8(8.4)	37(38.9)	41(43.2)	9(9.5)	95(100.0)
고등학교	8(11.3)	27(38.0)	26(36.6)	10(14.1)	71(100.0)
전체	66(13.0)	220(43.4)	191(37.7)	30(5.9)	507(100.0)

$$X^2=18.901df=6p=.004**$$

** p<.01

〈표 33〉에 나타난바와 같이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p<.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의 5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수 경험이 없는 집단의 2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3〉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약간 안다	잘 안다	전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23(9.0)	85(33.2)	119(46.5)	29(11.3)	256(100.0)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43(17.1)	135(53.8)	72(28.7)	1(.4)	251(100.0)
전체	66(13.0)	220(43.4)	191(37.7)	30(5.9)	507(100.0)

$$X^2=55.079df=3p=.000***$$

*** p<.001





한편, 직장생활 유무에 따라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5$), 직장생활을 안하는 집단이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 보다 자녀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4〉 직장생활 유무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약간 안다	잘 안다	전체
직장생활 함	46(14.6)	144(45.7)	104(33.0)	21(5.7)	315(100.0)
직장생활 안함	20(10.4)	76(39.6)	87(45.3)	9(4.7)	192(100.0)
전체	66(13.0)	220(43.4)	191(37.7)	30(5.9)	507(100.0)

$$X^2=8.217df=3p=.042*$$

* $p < .05$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46.6%가 ‘학교에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자녀가 이야기 해서가 44.8%로 나왔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양육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35〉 성교육 내용을 알게 된 경로

안내문 수령 여부	빈도(%)
학교에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103(46.6)
자녀가 이야기해서	99(44.8)
주변 학부모를 통해	8(3.6)
기타	11(5.0)
전체	221(100.0)

성교육의 내용을 주로 학교에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이라는 점에서 학교측으로부터 성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중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17.2%, ‘내용을 확인했다’가 40%였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거나(23.5%)’, ‘잘 모르겠다(19.3%)’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2.8%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학교와 양육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36〉 성교육 실시 안내문 수령 여부에 대한 인식

안내문 수령 여부	빈도(%)
전혀 없다	119(23.5)
학교에서 보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87(17.2)
받아 본 적이 있고 내용을 확인 했다	203(40.0)
잘 모르겠다	98(19.3)
전체	507(100.0)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들이 별도의 성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6.4%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수한 교육기관으로는 성교육 관련 공공 전문기관이 1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교육 관련 사설기관(3.2%)이었다.

양육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경우보다 중학생 자녀(27.4%), 고등학생 자녀(24%)를 둔 양육자인 경우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로 하여금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 이수 경험

	없다	성교육 관련 공공기관	성교육 관련 사설기관	기타	전체
초등학교	300(88.2)	33(9.7)	7(2.1)	-	340(100.0)
중학교	69(72.6)	17(17.9)	7(7.4)	2(2.1)	95(100.0)
고등학교	54(76.1)	13(18.3)	2(2.8)	2(2.8)	71(100.0)
전체	423(83.6)	63(12.5)	16(3.2)	4(.8)	506(100.0)

$$X^2=24.105df=6p=.000***$$

*** p<.001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양육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들이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비율이 높았다.

〈표 38〉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 이수 경험

	없다	성교육 관련 공공기관	성교육 관련 사설기관	기타	전체
성교육 이수 경험 있음	191(74.6)	47(18.4)	14(5.5)	4(1.8)	256(100.0)
성교육 이수 경험 없음	232(92.8)	16(6.4)	2(.8)	-	250(100.0)
전체	423(83.6)	63(12.5)	16(3.2)	4(.8)	506(100.0)

$$X^2=32.1611df=6p=.000***$$

*** p<.001

양육자들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을 이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한 결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라는 언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가 '공교육 성교육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학교 교육보다 괜찮아 보여서'등 학교 성교육에 불만족해서 라는 점이었다, 또한 '남자아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해 자신도 지키고 남에게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됨으로', '성폭력 사건이 많아서'등과 같은 방어적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 '성은 매우 중요해서', '필요하니깐', '또래와 같은 성이 모여 교육을 받다 보니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자 집단이 학교 성교육에 ‘불만족’하는 비율(41.4%)보다 ‘만족’하는 비율(58.6%)이 높았지만, 양육자 자신이 받은 성교육에 만족한다(81.1%)는 비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자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의식 정도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9〉 학교 성교육 만족도 대한 인식

성교육 만족도	빈도	%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54	11.2
거의 만족하지 못했다	147	30.6
약간 만족했다	254	52.8
매우 만족했다	26	5.4
전체	481	100.0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를 자유기재식으로 조사한 결과,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실시 자체에 대한 만족과 교육효과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성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해주기 어려운 부분인데,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해준다니 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나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교육 실시 자체에 대한 만족

- 부모가 하기 힘든 일인데 공교육에서 해주니 좋습니다.
- 부모가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서
- 부모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 준다
- 내가 해주지 못한 내용을 학교에서 건강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 가정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쉽게 알려주어서
-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교육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 내가 못해 주어서
- 보통 집 보다 나오니까
-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라 믿음이 간다
- 내가 민망해서 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교육
- 나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의 교육이므로
- 부모보다 교사에게 배우는 게 아이에게도 좋았다
- 가정에서 잘 못 챙겨주는 부분이라서
- 가정이 아닌 공교육에서 정기적으로 시켜주므로
- 내가 가르치기에 힘든 부분을 알려줌
- 부모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해줌
- 내가 하기 힘든 부분을 학교에서 대신해주기 때문

- 부모가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평범하게 말해주어서 좋았습니다
- 부모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기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는데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해주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어느 정도는 오픈되어 하는 듯 함
- 부모가 성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걸 교육을 시켜서
- 부모가 하기 힘들 얘기를 학교 성교육에 통해 알아서 좋음
- 부모가 하기엔 시간 공간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상당히 애매한데 대신해줘서
- 어떤 식의 교육이든 성교육은 필요하므로 만족
- 노출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
- 실시하는 자체가 일단 만족
- 엄마가 해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해줘서
- 부모로서 하기 힘든 교육을 해주시니 만족합니다
- 집에서 해주기 힘들어서 학교에서라도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 부모가 말하기 부담스러운 내용을 말해줘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

- 아이들에게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음
- 내가 어릴 때 받던 교육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교육을 하는 것 같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

- 아이가 이해하고 얘기해줘서요
- 요즘은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 이해하기 쉽게 설명 되었다
- 나이에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 아이가 알기 쉽게 설명해줌
- 체계적이다. 아이맞춤이다
-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셨다
-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서
- 나이에 맞게 알려주고 있어서
- 학년마다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 지속적으로 해서
- 분반수업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

- 아이가 교육을 들은 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요~
-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성에 대해서는 알게 됨
- 아이들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드림
-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서





한편, 학교 성교육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불만족’의 이유를 자유기재식으로 질문한 결과, 교육내용, 가정과의 소통부재, 교육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학부모가 가장 불만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형식적이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부모 세대에서 배웠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내용이 학년마다 변화되기 보다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외에 남학생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소수의견이지만 진보적 교육내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또한 양육자들은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 시간 떼우기 식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그리고 남녀 합반으로 진행됨으로써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학생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질문과 응답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 교육효과에 있어서 성을 부정적으로 접근해 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우려

- 곁핥기식 교육
- 너무 뻘한 내용이다
-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 외국처럼 진짜로 해야 한다
- 너무 현실적으로 하면 호기심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가르쳤다고 의기양양해질 것 같다
- 다 아는 내용인듯해서요
- 두리뭉실 하게 이야기한다. 피임법이나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중고생정도에만
- 성지식의 편차가 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환경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적 성교육을 해야 하는
- 현실을 이해하지만 더 전문적인 가치관에 중점을 둔 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시대에 뒤쳐져 있고 형식적이며 의무적으로만 한다.
- 아이들이 요즘 느끼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 아이에게 성교육에 대해 물으니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못 받았거나 받았어도 남녀평등 혹은 친구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들이라 성교육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좀 더 도움되는 내용도 있었으면 합니다.
- 너무 추상적이며 콘돔과 같은 예방차원의 교육이 부족하다
- 너무 남자들만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 훨씬 현실성 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느낌. 오히려 아이들은 다른 매체나 친구들 사이에서 듣는게 더 많은 듯.
- 현실에 맞게 알려줘야 하는데 실제 교실에서는 아직도..뭔가..솔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진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우려

-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줘서 부담스럽습니다
- 너무 현실적으로 하면 호기심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가르쳤다고 의기양양해질 것 같다

학교와의 소통부재에 대한 우려

-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다
-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음
- 내용을 알 수 없어서
- 성교육을 받았다는데 내용을 알지 못함
- 내용을 알지 못함.
-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
- 교육내용 및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서
-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 교육방식을 모르니
-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학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없다
-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가정으로 연계하여 성교육에 대하여 자녀와 대화하기 힘들다. 부모로서 알기쉽고 접하기 쉬운 책자로 알려주면 좋겠다.
-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
-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서구권 중심의 성교육 내용이나 정자, 난자 만나는 이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경험의 시기가 빨라진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하며, 최대한 십대에서 경험을 자제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에 맞는 피임법 또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교육방법에 대한 우려

- 너무 짧은 시간
- 성교육 횟수가 너무 작다
- 더 자주 했으면 해요
- 수준별 강의를 아니라서
- 남자, 여자가 같이 성교육을 받으니 아이들끼리 서로 눈치 보느라 질문이나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교육을 들으며 말로 장난치는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교육 전문인력이 아닌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연수 이수로 하는 교육보다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교육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등 시간 채우기 등이라고 들었다 중요하게 시간을 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남은 시간에 잠깐 영상매체를 보여주는 식
- 구렁이 담 넘듯 두루뭉실하고 뜯구름잡기식의 교육으로 실제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생활과 연계한 제대로 된 젠더교육, 성교육, 건강한 몸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 진도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학생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질문과 응답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이 함께 아이들과 같이 교육 받을 수 있음 좋겠다

교육효과에 대한 우려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 아이가 설명을 안해요 당당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뭔가 자기생각에 부끄러운게 되버리면 그건 성교육이 잘 안된 거라고 봐요
- 싫어요 안돼요 부정적인 부분만 가르치고 근본적이고 정확한 개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공공재로서 성교육

대부분 응답자는 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었다(전체 평균 3.71/4점 척도).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성교육의 대상은 성적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이어야 하고(평균 3.65)’, ‘성교육의 내용은 학교 구성원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평균 3.74)’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평균 3.71)’, ‘N번방 등 성폭력·성착취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평균 3.72)’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공재로서 성교육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0〉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성평등의식 수준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낮은 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높은 집단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14.0431	15.5000	2.41849	1.26946	-8.502	.000***

*** p<.001

또한 직장생활 유무에 따라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직장생활을 안 하는 집단이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공공재로서 성교육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직장생활 유무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직장생활 함	직장생활 안함	직장생활 함	직장생활 안함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14.5255	15.3158	2.24839	1.58540	-4.247	.000***

*** p<.001

성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공공재로서 성교육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 양육자의 성교육경험 유무별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성교육 경험 유무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성교육경험 있음	성교육경험 없음	성교육경험 있음	성교육경험 없음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	15.3346	14.3040	1.62801	2.30844	5.800	.000***

*** p<.001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교육에서도 무임승차의 양상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9.0%는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아버지 집단(79.7%)보다는 어머니 집단(90.3%)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85.7%)보다는 직장생활을 안하는 집단(94.3%)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1$).

〈표 43〉 양육자의 유형별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어머니	14(3.2)	29(6.5)	206(46.5)	194(43.8)	443(100.0)
아버지	1(1.6)	12(18.8)	20(31.3)	31(48.4)	64(100.0)
전체	15(3.0)	41(8.1)	226(44.6)	225(44.4)	507(100.0)

$$X^2=13.971df=3p=.003**$$

** $p < .01$

〈표 44〉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무별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직장생활을 함	13(4.1)	32(10.2)	131(41.6)	139(44.1)	315(100.0)
직장생활 안함	2(1.0)	9(4.7)	95(49.5)	86(44.8)	192(100.0)
전체	15(3.0)	41(8.1)	226(44.6)	225(44.4)	507(100.0)

$$X^2=9.932df=3p=.019*$$

* $p < .05$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0.3%는 ‘내가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성교육을 잘 받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39.2%)보다 성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집단(41.4%)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5$).

〈표 45〉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유무별 무임승차에 대한 인식의 차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교육이수 함	107(42.0)	48(18.8)	50(19.6)	50(19.6)	225(100.0)
성교육이수 안함	90(35.9)	57(22.7)	72(28.7)	32(12.7)	251(100.0)
전체	197(38.9)	105(20.8)	122(24.1)	82(16.2)	506(100.0)

$$X^2=10.126df=3p=.018*$$

* $p < .05$





4. 학교 성교육에 대한 요구

가. 성교육의 주체

전체 응답자의 49.5%는 ‘학교’를 성교육 실시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성교육 전문기관(47.4%), 가정(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5$),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의 56.5%는 ‘학교’를,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의 52.9%는 ‘성교육 전문기관’을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라고 응답했다.

〈표 46〉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른 성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학교	가정	성교육 전문기관	기타	전체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	118(56.5)	7(3.3)	84(40.2)	-	209(100.0)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	120(44.1)	6(2.2)	144(52.9)	2(.7)	272(100.0)
전체	238(49.5)	13(2.7)	228(47.4)	2(.4)	481(100.0)

$X^2=9.800df=3p=.020*$

* $p < .05$

나. 학교 성교육 횟수

응답자의 87.8%는 ‘지금의 학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교육의 횟수가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요구는 자녀의 성별, 양육자의 유형, 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육자 집단 중 외동딸(98.1%)을 둔 경우가 학교 성교육의 횟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매(90.9%), 외동아들(88.2%), 자매(86.5%), 형제(77%)를 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부족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동딸을 둔 양육자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매, 자매, 외동아들, 형제를 둔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자녀 유형별 학교 성교육 횟수

자녀 유형	현재로서도 적절하다	더 강화되어야 하나 확대가 쉽지 않음	매우 부족해 강화되어야 함	잘 모르겠다	전체
형제	12(13.2)	43(47.3)	27(29.7)	9(9.9)	91(100.0)
남매	12(6.8)	90(51.1)	70(39.8)	4(2.3)	176(100.0)
자매	5(4.9)	53(51.5)	36(35.0)	9(8.7)	103(100.0)
외동아들	5(5.9)	47(55.3)	28(32.9)	5(5.9)	85(100.0)
외동딸	1(1.9)	22(42.3)	29(55.8)	-	52(100.0)
전체	35(6.9)	255(50.3)	190(37.5)	27(5.3)	507(100.0)

$X^2=27.855df=12 p=.006**$

** $p < .01$

양육자 유형에 따라 학교 성교육 횟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아버지 집단 중 18.8%가 현재의 교육 횟수로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이에 대해 어머니 집단의 5.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어머니 집단의 89.6%는 학교 성교육 횟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표 48〉 양육자 유형별 학교 성교육 횟수

	현재로서도 적절하다	더 강화되어야 하나 확대가 쉽지 않음	매우 부족해 강화되어야 함	잘 모르겠다	전체
어머니	23(5.2)	228(51.5)	169(38.1)	23(5.2)	443(100.0)
아버지	12(18.8)	27(42.2)	21(32.8)	4(6.3)	64(100.0)
전체	35(6.9)	255(50.3)	190(37.5)	27(5.3)	507(100.0)

$X^2=16.391 df=3 p=.001^{**}$

** $p < .01$

다.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학교 성교육의 목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24.2%는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에이즈 등) 습득’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1.2%)’, ‘성행동에 대한 이해,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키우는 교육(19.8%)’,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예방교육(14.5%)’순으로 나타났다. ‘순결에 기반한 절제·금욕 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학교 성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우선시하는 교육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성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4.2%)’,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에이즈 등) 습득(22.8%)’을,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에이즈 등) 습득(25.2%)’, ‘성행동에 대한 이해,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키우는 교육(20.9%)’을 가장 우선시했다.

〈표 49〉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성교육의 목적	성평등의식수준		합
	낮음	높음	
순결에 기반한 절제·금욕 중심의 가치관 교육	30(5.0)	15(1.9)	45(3.2)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146(24.2)	148(18.9)	294(21.2)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HIV(에이즈) 등) 습득	138(22.8)	198(25.2)	336(24.2)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예방교육	88(14.6)	114(14.5)	202(14.5)
성차별 및 성상품화된 미디어 비판의식 기르기	55(9.1)	68(8.7)	123(8.9)
성행동에 대한 이해,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키우는 교육	111(18.4)	164(20.9)	275(19.8)
인간관계와 성적 권리 등 성에 대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7(6.0)	78(9.9)	114(8.2)
전체	604(43.5)	785(56.5)	1,389(100.0)





라. 양육자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응답자의 대부분은 제시된 교육내용이 학교 성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젠더의 이해(11.8%)’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12.8%)’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율이 다른 교육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성교육의 시작 시기는 대부분 교육내용에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⑥ 인간의 신체 발달(신체이미지, 사춘기 신체변화 등)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로 시작하기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보면,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27.4%), ⑥ 인간의 신체 발달(신체 이미지, 사춘기 신체 변화 등)(21.3%),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 예방에 대한 감수성(15.8%) 교육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시작하기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는 ⑥ 인간의 신체 발달(신체이미지, 사춘기 신체 변화 등)(37%),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30.5%),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29.6%)에 대한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실시 시기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⑧ 성 및 재생산건강(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등)(40.6%), ④ 성건강 복지를 위한 기술(또래문화, 성규범, 미디어정보 해독력과 의사소통 기술)(38.1%), ② 성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성적권리에 대한 이해(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시작하기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는 ⑧ 성 및 재생산건강(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등)(31.4%),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22.8%),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22.6%)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시작하기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보면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9.8%), ⑧ 성 및 재생산건강(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등)(8.9%)으로 나타났다.

〈표 50〉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양육자 집단의 인식

내용	교육 필요		교육 실시 시기				
	유	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5-7세	8-10세	11-13세	13-16세	17-19세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	486 (95.9)	21 (4.1)	133 (27.4)	144 (29.6)	148 (30.5)	50 (10.3)	11 (2.3)
② 성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성적권리에 대한 이해	484 (95.5)	23 (4.5)	73 (15.1)	136 (28.2)	174 (36.0)	73 (15.1)	27 (5.6)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447 (88.2)	60 (11.8)	56 (12.6)	103 (23.1)	154 (34.5)	101 (22.6)	32 (7.2)
④ 성건강 복지를 위한 기술(또래문화, 성규범, 미디어정보 해독력과 의사소통 기술)	487 (96.1)	20 (3.9)	59 (12.2)	140 (28.9)	185 (38.1)	72 (14.8)	29 (6.0)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495 (97.6)	12 (2.4)	78 (15.8)	151 (30.5)	148 (29.9)	90 (18.2)	28 (5.7)
⑥ 인간의 신체 발달(신체 이미지, 사춘기 신체 변화 등)	495 (97.6)	12 (2.4)	105 (21.3)	182 (37.0)	157 (31.9)	33 (6.7)	15 (3.0)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	442 (87.2)	65 (12.8)	44 (10.0)	90 (20.5)	161 (36.8)	100 (22.8)	43 (9.8)
⑧ 성 및 재생산건강(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등)	498 (98.2)	9 (1.8)	19 (3.8)	76 (15.3)	202 (40.6)	156 (31.4)	44 (8.9)

한편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 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p < .01$, $p < .05$).

〈표 51〉 양육자의 성평등의식 수준별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내용	성평등의식 낮은 집단		성평등의식 높은 집단		T값	P
	유	무	유	무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	196 (93.8)	13 (6.2)	267 (98.2)	5 (1.8)	6.300	.012*
② 성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성적권리에 대한 이해	196 (93.8)	13 (6.2)	264 (97.1)	8 (2.9)	3.043	.081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173 (82.8)	36 (17.2)	252 (92.6)	20 (7.4)	11.197	.001**
④ 성건강 복지를 위한 기술 (또래문화, 성규범, 미디어정보 해독력과 의사소통 기술)	197 (94.3)	12 (5.7)	265 (97.4)	7 (2.6)	3.127	.077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204 (97.6)	5 (2.4)	266 (97.8)	6 (2.2)	.018	.892
⑥ 인간의 신체 발달 (신체 이미지, 사춘기 신체 변화 등)	202 (96.7)	7 (3.3)	268 (98.5)	4 (1.5)	1.867	.172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	173 (82.8)	36 (17.2)	248 (91.2)	24 (8.8)	7.641	.006**
⑧ 성 및 재생산건강 (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 등)	205 (98.1)	4 (1.9)	268 (98.5)	4 (1.5)	.142	.706

** $p < .01$, * $p < .05$

한편,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 양육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의견 반영

성교육 만족도	빈도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	3.2
거의 필요하지 않다	35	7.0
약간 필요하다	260	51.9
매우 필요하다	190	37.9
전체	501	100.0





마.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 보완점

마지막으로 학교 성교육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26.5%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를 언급했고 다음으로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26%)’, ‘독립된 시간보다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 확대(10.0%)’순으로 나타났다(<표 53>참조).

응답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보완할 지점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25.1%)’을,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28.6%)’과 더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28.5%)’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로 언급했다. 그리고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교육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 확대(10.6%)’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평등의식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성교육 실시 계획과 결과에 대한 학부모 안내문 배포(8.6%)’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2.5%포인트 차이).

<표 53> 양육자가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의 보완점

학교 성교육 보완점	성평등의식 수준		합
	낮음	높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144(23.8)	226(28.5)	370(26.5)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152(25.1)	211(28.6)	363(26.0)
성별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 방안 마련	63(10.4)	66(8.3)	129(9.2)
독립된 시간보다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 확대	67(11.1)	73(9.2)	140(10.0)
성교육 실시 계획과 결과에 대한 학부모 안내문 배포	52(8.6)	48(6.1)	100(7.2)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54(8.9)	64(8.1)	118(8.4)
교사의 성교육 연수 정례화 및 연수 시간 확대	23(3.8)	20(2.5)	43(3.1)
성교육 전문인력 및 기관 확대	48(7.9)	84(10.6)	132(9.4)
기타	2(3)	-	2(1)
전체	605(43.3)	792(56.7)	1397(100.0)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자 집단의 성교육 경험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양육자 집단이 기대하는 학교 성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20년 12월 18일-12월 22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웹설문 조사(구글폼)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507부의 설문지는 SPSS 25를 활용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과 성평등 의식

화성시 양육자의 성교육 이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가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다른 집단보다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안하고, 50대 이상인 양육자 집단이 성교육 이수 경험이 높았다. 성교육을 이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28.5)',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24.6%)', '직장(24.6%)'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학교나 직장 이외에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통해 성교육을 이수한 양육자가 응답자의 46.9%를 차지했는데, 이는 화성시 양육자들이 성교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성교육을 이수한 양육자 집단을 대상으로 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1.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화성시 양육자 집단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4점 척도 기준 평균 3.5로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의식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역할 의식수준(평균 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평균 3.18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평균 2.87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의 세부 항목 중에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꼼꼼하고 세심하여 가사일과 자녀들을 더 잘 돌본다(평균 2.56)', '신체상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평균 2.73)'는 문항을 성차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지적 감수성 문항 중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평균 1.43)',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평균 2.82)',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2.97)'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화성시 양육자 집단의 경우 성고정관념에 기반해 남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경향은 적으나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전통적인 여성성, 남성성을 유지하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동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이성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 아버지 집단,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양육자 성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나.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른 학교 성교육 인식

전체 응답자의 87.9%가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이전에 실시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58.6%는 유치원때부터 성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43.6%만이 교육기관의 성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내용을 알게 된 경로로 학교에서 배포한 가정통신문(46.6%)과 자녀의 이야기(44.8%)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2.8%가 ‘학교에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받지 못했거나(23.5%)’, ‘잘 모르겠다(19.3%)’고 응답한 점에서 학교-가정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의 26.4%가 자녀로 하여금 학교 밖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별도의 성교육을 이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성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한 이유를 보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들은 학교 밖 기관이 학교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자세한 현실적 사례를 기반으로 성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남아를 둔 양육자의 경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전략 차원에서 성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하는 비율(41.4%)보다 ‘만족’하는 비율(58.6%)이 높았지만 양육자 자신이 받은 성교육의 만족도(전체 응답자의 81.1%가 만족함)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였다.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를 자유기재식으로 조사한 결과,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실시 자체에 대한 만족과 교육효과에 만족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즉, 성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해주기 어려운 부분인데, 학교에서 해주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학교 성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형식적이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외에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 부재로 내용 파악이 안된다는 것, 일회성 수업, 강의식 수업 방법 그리고 남녀 합반으로 운영되는 교육방식 등에 대한 불만도 다수 개진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전체 응답자의 90.1%는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 양육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응답자는 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 및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공공재로서 학교 성교육의 무임승차 현상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40.3%는 ‘내가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성교육을 잘 받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39.2%)보다 성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집단(41.4%)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양육자의 개인적 변수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요구

전체 응답자의 49.5%는 ‘학교’를 성교육 실시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성교육 전문기관(47.4%), 가정(2.7%) 순으로 답함으로써 학교 및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7.8%는 ‘지금의 학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교육의 횟수가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자녀가 남매, 외동아들, 자매, 형제 순으로, 아버지 집단보다는 어머니 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 성교육의 목적에 대해 양육자 집단의 24.2%는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에이즈 등) 습득’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1.2%)’, ‘성행동에 대한 이해,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키우는 교육(19.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결에 기반한 절제·금욕 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학교 성교육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2%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해 제시된 8개의 교육내용이 학교 성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젠더의 이해(11.8%)’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12.8%)’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율이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양육자 집단 간 통계적으로 나타난 의미있는 차이를 보면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의 이해,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관념에 대한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양육자 집단은 대부분 교육내용의 적절한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만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 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⑥ 인간의 신체 발달(신체이미지, 사춘기 신체변화 등)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 성교육의 보완할 점으로 응답자의 26.5%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다음으로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26%)’, ‘독립된 시간보다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 확대(10.0%)’를 제시했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주체적인 성교육자로서 양육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성교육 현장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가. 아버지 집단과 직장생활을 하는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 아버지 집단, 직장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평등의식은 공공재로서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무임승차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성교육 내용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학교 및 성교육 전문단체에서는 이들 집단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저녁 시간에, 그리고 대면 이외에 비대면으로 운영할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운영방식의 유연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양육자 집단을 대상으로 온정적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내용 강화

양육자 집단 성평등의식의 세부 항목을 보면 온정적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 성교육에 젠더 관점이 통합된 내용 구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 내용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양육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 교육기관-양육자 집단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기관의 성교육 효과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양육자 집단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90.1%는 학교가 양육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양육자 집단에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성교육 주체로서 학교와 양육자 집단 간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양육자를 성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성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본 조사를 통해 양육자 집단이 학교 성교육에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응답자 대부분이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해 제시된 교육내용이 학교 성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양육자 집단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년마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6.5%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이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가장 우선시 했다. 그러므로 학교 성교육 내용이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학년마다 반복되어야 할 주요 개념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심화, 반복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 공공재인 성교육에 대한 학교 책무성 강화

본 조사를 통해 양육자 집단은 성교육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성교육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학교’를 성교육 실시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청 - 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는 성교육의 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바.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 확대

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육자 집단은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는 이유가 양육자가 해 줄 수 없는 영역을 학교가 감당해 준다는 차원에서 즉, 성교육 실시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학교 성교육 내용 및 방법과 교육 강사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학교와 각 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들 기관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한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육자 집단을 학교 성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학교가 포괄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성교육 내용 요구에 대한 청소년과 양육자 집단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한 조사 필요

본 조사를 통해 응답자 대부분은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해 제시된 8개의 교육내용이 학교 성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젠더의 이해(11.8%)’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12.8%)’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율이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사례 및 성교육 실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성교육 현장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교육 수혜당사자인 청소년들의 경우 성교육에 대한 요구에 있어 ‘젠더 및 페미니즘 이해’와 ‘섹슈얼리티 성적 행동’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 연구’ 라는 성교육요구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가 조사 되었다. 성교육 내용에 대한 청소년 집단과 양육자 집단 간의 차이는 갈등의 소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성교육 주제 및 내용에 대한 다양한 집단 간 요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실천 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 참고문헌 I

- 강남식, 강선미(2013). 성폭력예방교육 강의를 매뉴얼: 교사, 학부모.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
- 김명화(2005).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양희, 이수연, 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윤숙(2008).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 김민화(2016).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397-413.
- 박선례(2009).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 김인순, 최윤정, 김금미, 최연혁(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재희(2019).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이연숙, 정인숙(2010).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의 효과: 부산시 S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26(2), 111-127.
- 임미림, 변영순(2002).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123-139.
- 임정순, 박옥임(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침.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79-83
- 조명주, 임견주(2020).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Teen STAR의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160-160.
- 진현수, 박호란(2011).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성지식과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7(3), 198-205.
- 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김효경, 최윤정(2019).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윤정, 장운선, 장희영, 최윤진(2018).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하경해(2018). 청소년의 부모, 또래요인, 인터넷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및 성교육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2013).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성협(2019). 2019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자료집
- 홍달아기, 이남주, 채옥희(2003). 자녀가 지각한父(부)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권.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부록_ 설문지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조사

본 설문지는 공교육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문항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응답 결과는 공교육에서의 성교육 정책 및 과정을 제안하기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한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감사합니다

*** 다자녀인 경우 한 자녀만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육자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형제 ② 남매 ③ 자매 ④ 외동아들 ⑤ 외동딸

2. 자녀의 학교급 (다자녀의 경우 한 자녀만 염두에 두고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3. 양육자께서는 성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3-1이동) ② 아니오(4번으로 이동)

3-1, 어느 기관에서 성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②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 ③ 직장 ④ 기타()

3-2, 받으신 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이해(사춘기, 음란물지도 등)
 ② 젠더기반 폭력예방 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③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훈련
 ④ 기타





3-3, 교육받으신 성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가?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3-4로 이동)
- ② 거의 만족하지 못했다(3-4로 이동)
- ③ 약간 만족했다(3-5로 이동)
- ④ 매우 만족했다(3-5로 이동)

3-4,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6, 교육받으신 성교육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4, 성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정보가 없어서
- ②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직장생활 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④ 교육적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 ⑤ 기타

*** 성평등의식**

5. 양육자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①	②	③	④
5-2	집, 땅과 같은 큰 재산은 아내보다는 남편이 소유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5-3	밥 짓기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5-4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5-5	반장(회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5-6	과학, 기술 분야의 공부는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5-7	여자는 중요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8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5-9	회사에서 남자가 여자의 부하로 일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①	②	③	④



9.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한 성교육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학교에서 보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 ③ 받아 본 적이 있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 ④ 잘 모르겠다

10.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0-1번으로 이동)
- ②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10-1번으로 이동)
- ③ 약간 만족했다(10-2번으로 이동)
- ④ 매우 만족한다(10-2번으로 이동)

10-1,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2,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양육자께서는 학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횟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현재로서도 적절하다
- ②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교육여건상 확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
- ③ 매우 부족하므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2.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고르시오)

- ① 순결에 기반한 절제·금욕 중심의 가치관교육
- ②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 ③ 성 건강에 대한 지식(신체발달, 임신 및 출산, 피임, HIV, 에이즈 등) 습득
- ④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
- ⑤ 성차별 및 성상품화된 미디어 비판의식 기르기
- ⑥ 성행동에 대한 이해,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키우는 교육
- ⑦ 인간관계와 성적권리 등 성에 대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13.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의 성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받으셨습니까?

- ① 없다
- ② 성교육 관련 공공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공공 청소년기관) (문항 13-1로 이동)
- ③ 성교육 관련 사설 기관(학원, 문화센터, 그룹 및 개인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문항 13-1로 이동)
- ④ 기타 (문항 13-1로 이동)

13-1.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녀가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학교의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 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 ② 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 ③ 성별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 방안 마련
- ④ 독립된 시간보다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 확대
- ⑤ 성교육 실시 계획과 결과에 대한 학부모에게 안내문 배포
- 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 ⑦ 교사의 성교육 연수 정례화 및 연수 시간 확대
- ⑧ 성교육 전문 인력 및 기관 확대
- ⑨ 기타

15. 아동, 청소년의 성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② 가정 ③ 성교육 전문기관 ④ 기타

16. 아동,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학교는 양육자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7. 학부모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1	성교육의 대상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교사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17-2	성교육의 내용은 학교 구성원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3	N번방 등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17-4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17-5	다른 사람들이 성교육을 잘 받으면 내가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6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학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이 몇 학년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필요		학년				
	유	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5-7세	8-10세	11-13세	13-16세	17-19세
① 가족 및 다양한 관계(친구, 연인)의 이해와 책임							
② 성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성적권리에 대한 이해							
③ 젠더의 이해(성고정관념에 따른 불평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④ 성건강 복지를 위한 기술 (포래문화, 성규범, 미디어정보 해독력과 의사소통 기술)							
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혐오등 폭력예방에 대한 감수성							
⑥ 인간의 신체의 발달 (신체이미지, 사춘기 신체변화등)							
⑦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표현물, 스킨십, 성반응)							
⑧ 성 및 재생산건강 (피임,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증(성병)등)							
⑨ 기타							

*** 개인 인적 사항**

1. 귀하는 가정 내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2. 연령대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이상

3. 직장생활 유무

- ① 하고 있음 ② 안하고 있음

4. 학력

- ① 고졸 ② 초급대학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지역 양육자 집단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발행인 곽지숙
주소 18427)경기도 화성시 여울로 2길 33
전화 031)8015-3900
홈페이지 <https://hssay.hswf.or.kr>
편집 예지디자인
